

“국민주권, 투표로 완성됩니다” 제21대 대선 투표 독려

나주시, 현수막·전광판·마을방송·SNS·유튜브까지 전 세대 맞춤형 홍보 다각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행정 지원과 더불어 시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 유권자 수는 약 9만9970명으로 예상된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관내 지정 사전투표소 20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대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지정 투표소 42곳에서 진행된다.

나주시는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대선 투표 독려에 중점을 둔 전 세대 맞춤형 전방위적인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먼저 관내 현수막 게시대 전체 39개소를 비롯해 시청사, 빔가람 혁신도시 사거



리 등 홍보탑 5개소에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투표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청사, KTX나주역, 영산포 흥어거리,

빔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동·방문 인구가 많은 거점별 영상 전광판에도 24시간 투표 홍보 메시지를 송출한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마을·아파트 경로당 일제 방송과 홍보 리플

릿을 배부하고 모바일 시정 안내 서비스인 나주알리미 가입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 일정을 안내, 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다.

젊은 유권자, 이른바 2030 MZ세대 투표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시는 투표 참여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비롯한 시 공식 SNS계정에 업로드하고 대선 선거 일정과 투표소 등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SNS채널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투표로 시작되고 완성된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주어진 소중한 투표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진도군, 농번기 맞이 농업용수 본격 공급

방조제 27개소, 양수장 55개소, 저수지 100개소 점검

진도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을 차세대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방조제, 양수장,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진행하고, 농번기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방조제 27개소(수문 73면), 양수장 55개소, 저수지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 수문 부식과 누수가 확인된 4개소, 안전시설 미비가 드러난 12개소의 방조제에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진공펌프 결함과 조절기(밸브)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한 9개 양수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수 작업을 진행해 농번기 중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4월에는 군내 간척지(수해면적 464ha), 보전 간척지(수해면적 173ha)

를 중심으로 부속 밸브 점검과 정비를 진행했으며, 교체가 시급한 6개소의 부품은 사전 교체를 완료했다.

진도군 건설과 관계자는 “농업용수 공급은 단순한 물 공급을 넘어, 지역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적기 예산 집행을 통해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가뭄과 해수 유입에 따른 염해 대응능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노후화와 반복적인 고장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사전 점검과 예산 투입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수율 분석, 긴급 대응 훈련, 관정 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물 관리 대책을 추진해 영농 안정과 농가 소득의 증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 무안물’이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 30% 할인 기획전을 2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무안 양파 소비 촉진과 맛플무안물 회원 3만 명 돌파를 기념한 2차 행사로, 1인당 1매씩 제공되는 양파

무안군 맛플무안물, 고품질 양파 30% 할인전 열려

5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1만원 할인 혜택

30% 할인쿠폰을 통해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28일부터 진행된 핫양파

기획전에서는 전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단 이틀 만에 13톤이 판매되며 조기 마감되는 성과를 거두, 이번 행사도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연초 양파 수입산 물량 급증하고 6월 초 수확을 앞둔 중만생종의 높은 단수가 예상되어 농가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지역 농가들을 위해 고품질 무안 양파 소비 촉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흥군, 직업소개업 종사자 대상 실무 교육 성료

장흥군은 지난 5월 19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법정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흥군이 관내 종사자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 교육을 제공하고자 직접 주관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남지회와 협업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당초 장흥·강진·완도3개 군 대상 교육으로 기획되었으나, 여수, 순천, 해남, 영암, 진도 등 인근 지자체 종사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총 8개 시군, 48명이 함께한 광역 실무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직업소개업 운영자 입장에서 실제로 겪는 상황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행정·노무 처리에 대한 이해도 높여줬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 제공



함평군, ‘찾아가는 혈관 클린 건강 오피스 만들기’ 호응

전남 함평군이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터를 직접 방문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만성질환 조기 예방에 나섰다.

함평군은 21일 “함평군 보건소가 지난 3월부터 한전 함평지사를 시작으로 씨엠테, 국군함평병원, 함평우체국 등 지역 사업장을 방문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혈관 클린 건강 오피스’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보건 전문 인력이 사업장을 찾아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인바디 검사, 건강상담 등을 통해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12월까지 운영된다.

함평/전광훈 기자



화순군, 2025년 화순군 자살예방 간담회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0일 보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강영)에서 ‘2025년 화순군 자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자살 고위험 현황 공유 ▲자살 예방 활동 방안 논의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화순군청·화순경찰서·화순소방서·화순군의사회·화순군약사회·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화순지역자활센터·나드리노인복지관·화순교육지원청 Wee센터 등 총 20개 기관 약 33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KEPCO